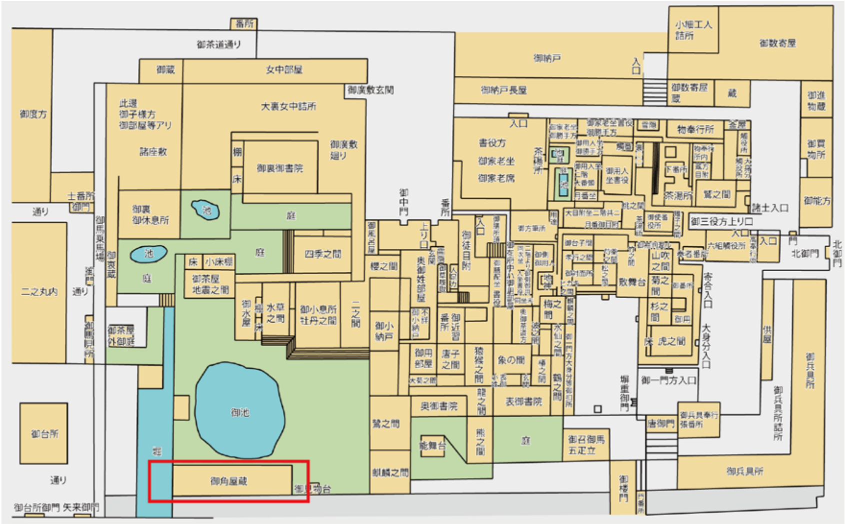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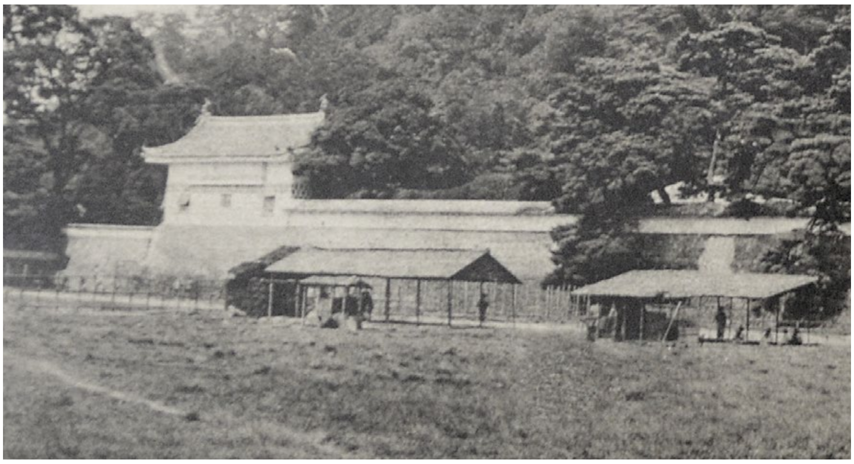
각루 유적

御角櫓跡
Osumi Yagura Ruins
城角箭楼遗址
城角箭樓遺址

각루는 가고시마 (쓰루마루) 성 혼마루 거처의 우치보리 (안쪽 해자) 를 마주한 남쪽 끝에 위치한 망루였습니다 . 길이 약 20m, 폭 약 7.5m 정도의 건물이었다고 추측됩니다 . 헤이세이 11(1999) 년의 돌담의 보수 사업에 동반되어 실시된 발굴 조사에서는 현지 표면 아래 약 1m 지점에서 망루 기초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.
기초 석축은 길이 10m, 폭 3.8m 정도가 남아있으며 이 점에서 각루의 외벽은 돌담 위와 마름돌을 배열한 초석 위에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. 각루의 주변에는 폭 0.6m 정도의 낙숫물 배수로 (배수구) 로 둘러싸여 있고 같은 폭의 둔덕이 있었습니다 . 둔덕이나 기초 석축에는 회반죽으로 굳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.
각루는 저택의 동남쪽에 위치하여 성의 방어와 함께 미관이나 위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입니다 . 메이지 초기의 자료에서는 "오스미야구라" 라고 표현되어 물품 수장 시설로서의 용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.
13 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부인 아쓰히메 (후일의 덴쇼인) 이 가에이 6(1853) 년 6 월 15 일 이곳에서 기온 축제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.



각루의 위치 (「나루오 쓰네노리 도면」 에서)



메이지 5(1872) 년에 촬영한 각루